인도주의 NIE

'인도주의'란 (Humanitarianism)

인간에 대한 사랑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인종·국적·종교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본격적인 근대 인도주의 활동은 1863년 세계 적십자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됐습니다. 어린이조선일보와 대한적십자사는 아동·청소년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인도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매주 지면에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린이조선일보 × 대한적십자사

요일별 주제 안내

- 月 아트 리터러시 NIE
- 火 시사 토론 NIE
- 水 인도주의 NIE
- 木 독서 NIE

❶ 근대 최초의 인도주의 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❷ 별별 TALK

별이: 박사님! 국제적십자위원회는 6·25 때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별이: 전쟁터에서만 사람들을 도와주나요?

척척박사: 전쟁은 물론 여러 폭력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준단다.

척척박사: 무력 충돌로 건물이나 도로가 파괴되면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주고…

별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치료도 해주고요!

척척박사: 하하, 별이는 적십자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구나.

별이: 그럼요, 적십자가 노벨평화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도 아는 걸요^^.

척척박사: 우아♥

❸ 돋보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1863년 설립된 인도주의 기구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랜 역사를 가졌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현재 2만 명 넘는 직원이 약 80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력 충돌, 내란 등 긴장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 의료 보건, 가족 찾기, 국제인도법 연구와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❹ 함께해 봐요

(활동 1) 퀴즈 놀이

다음 퀴즈의 답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검색으로 답을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퀴즈	답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노벨상을 모두 몇 번 받았나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한국에서 처음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요?	

(활동 2)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인터넷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 정보를 검색해서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봅시다. 빈칸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쓰고 해시태그(#)도 달아 보세요. 어떤 검색어를 넣어야 SNS 친구들이 내가 올린 정보에 관심을 가질지 생각하며 해시태그를 완성해 보세요.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
#
#

서준호 선생님이 들려주는 마음 이야기

단짝 한 명도 좋지만… 여러 친구 사귀어 보세요

학년 초가 되면 단짝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줄이기 위해 빨리 단짝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네 단짝 친구는 누구니?" "단짝 친구는 만들었니?"라고 물어보실 때 단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이런 말씀은 '네가 혹시 학교에서 외롭게 있을까 봐 걱정되는구나'라는 뜻이기도 하니 단짝 친구가 없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친구를 사귀는 데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단짝'이란 말은 항상 함께 어울리는 매우 친한 사이를 뜻해요. 단짝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재미있는 일을 같이할 수 있지요. 함께 딱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때론 화장실도 함께 우르르 다녀오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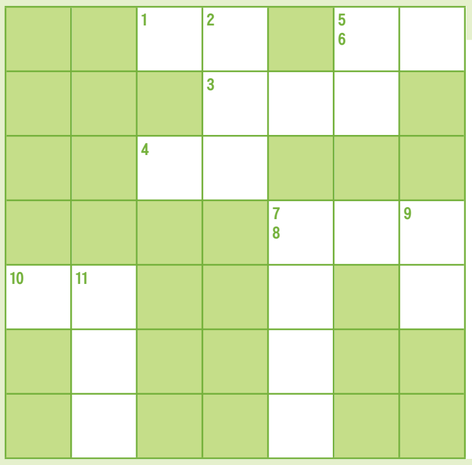
하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단짝 친구로 지내는 친구들에게 가끔 교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단짝 친구 사이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함께 놀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친구를 밀어내 다툼이 되기도 하고, 학년이 바뀌면서 단짝과 헤어져 정말 슬퍼하는 모습도 본 적 있지요. 그래서 '단짝'이라는 말은 한편으론 친구에게

단짝, 의존도 과도하게 높으면 '역효과'
여러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길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답니다.

단짝 친구가 있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세요. 단짝과 잠깐 헤어져도 언제나 내 주변엔 좋은 친구들이 있고, 나는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답니다. 학교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친구가 생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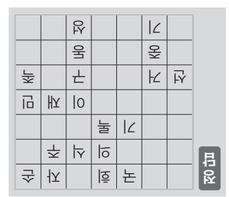
광주 효동초등학교 교사



속 시원한 속뜻 퀴즈

가로 ➡
1번 국민(國民)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會].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
3번 인간 생활의 세 가지 요소인 옷[衣], 음식(飮食), 집[住]을 아울러 이르는 말.
4번 적어두고[記] 베껴둠[錄].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5번 자식[子]과 손자(孫子). 후손이나 후대.
7번 재해(災害)를 입은[罹] 주민(住民).
10번 대표자나 임원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選] 냄[擧].

세로 ⬇
2번 회의(會議)의 내용 등을 적은 기록(記錄).
6번 자기(自己)가 주인(主人)이 되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함.
8번 각기 다른[異] 입[口]에서 같은[同] 소리[聲]를 냄.
9번 같은 지역에 사는 백성[民]의 무리[族].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해 언어나 풍속 따위의 문화 내용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
11번 무거운[重] 물건을 들어[擧] 올릴 때 쓰던 기계나 장치[器].



출제 정소나 속뜻사전교육출판사 편집팀장